

특별기획 시리즈
제 167 회

금성치과의원 원장

- 김 규 문 -

중세의 연금술(1558)

신의 노여움은 병, 역질, 기근, 사람들의 싸움이 되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또 다시 신은 구약성경의 여호와와 엄한 얼굴 모습이 되었다.

암흑시대에는 신과의 중개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의사 즉 순교자인 성인들에게서 구해졌지만 중세에는 병치료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온갖 종류의 성인 숭배가 폭발적으로 생겨났다.

그 와중에서 치과의 성인 St. Apollonia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. 이 그림은 연금술사의 점포를 그린 판화로서 연금술, 약학 점성술이 하나로 묶어서 행해짐을 보여주고 있다.

